

2018년 10월 25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실적 둔화 우려로 하락폭 확대 연준, “관세 발효로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완제품 가격도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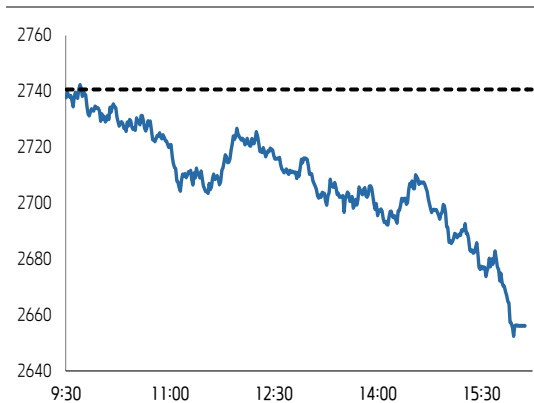
### 미 증시 하락 요인

미 증시는 부진한 AT&T(-8.06%) 실적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우려 여파로 하락 출발. 특히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8.22%)가 중국내 수요 둔화를 전망하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점이 부담. 시장 참여자들은 무역분쟁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 피크 가능성이 제기되자 매물 출회. 특히 페이스북(-5.41%) 등 매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주가 하락 주도.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 관세 발효로 기업들의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실적 둔화 시사하자 낙폭 확대(다우 -2.41%, 나스닥 -4.43%, S&P500 -3.09%, 러셀 2000 -3.79%)

미 증시가 실적 피크논란에 휩싸이며 하락. 특히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발효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옴. 전일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제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며 급락. TI는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내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며 향후 매출 감소를 언급.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00% 하락.

한편, 미국의 대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로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 많은 투자은행들이 S&P500 기업들의 2019년 이익 전망치가 관세 발효로 15% 내외 줄어들 것으로 전망. 이럴 경우 2019년 1분기는 전년 대비 8% 감익 되는 등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어 최근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중 하나였음. 이 문제는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기업들이 관세에 따른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완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라고 주장. 한편, 베이지북에서 ‘tariff(관세)’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를 보면 3월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4월에 36건이 언급된 이후 계속 논란이 일었으며, 이번 달에는 51건이 언급 되는 등 연준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함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97.58	-0.40	홍콩恒生	25,249.78	-0.38
KOSDAQ	699.30	-2.74	영국	6,962.98	+0.11
DOW	24,583.42	-2.41	독일	11,191.63	-0.73
NASDAQ	7,108.40	-4.43	프랑스	4,953.09	-0.29
S&P 500	2,656.10	-3.09	스페인	8,677.40	-0.56
상하이종합	2,603.30	+0.33	그리스	632.56	+2.11
일본	22,091.18	+0.37	이탈리아	18,485.46	-1.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기술주 실적 둔화 우려로 하락

페이스북(-5.41%)은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에서 CFO가 하반기 광고 수익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 했었다. 다만, 시장은 페이스북의 주력 사이트 광고 지출 증가가 느려지고 있으나, 인스타그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광고 수익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오늘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알파벳(-5.18%)은 상원의원이 Google+ 사용자 정보 노출이 FTC(연방거래위원회) 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하자 하락했다. 향후 벌금 부과로 인한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8.22%)는 전일 향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마이크로(-8.40%) 등 중국 내 매출이 있는 업체들도 동반 하락 했다. GM(-4.86%), 포드(-4.66%) 등 자동차주와 캐터필라(-5.58%), 3M(-4.16%)등 산업재 또한 중국내 매출 둔화 우려로 하락 했다. 반면, 넥스테라에너지(+2.91%) 등 유틸리티 업종과 P&G(+2.64%) 등 필수 소비재 업종등 경기 방어주는 강세를 보였다. 보잉(+1.31%)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다. MS(-5.35%)은 실적 발표후 시간외로 4% 넘게 상승 중이다. 테슬라(-1.92%)는 처음으로 흑자에 성공하자 시간외로 10% 넘게 급등 중이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6.03%	대형 가치주 ETF	-2.41%
에너지섹터 ETF	-5.00%	중형 가치주 ETF	-2.36%
소매업체 ETF	-1.92%	소형 가치주 ETF	-3.30%
금융섹터 ETF	-2.59%	배당주 ETF	-0.48%
기술섹터 ETF	-4.48%	변동성 ETF	+8.95%
소셜 미디어업체 ETF	-5.17%	대형 성장주 ETF	-3.56%
인터넷업체 ETF	-4.82%	중형 성장주 ETF	-3.80%
리츠업체 ETF	+1.17%	소형 성장주 ETF	-4.29%
주택건설업체 ETF	-3.46%	신흥국 고배당 ETF	-2.04%
바이오섹터 ETF	-5.76%	신흥국 저변동성 ETF	-2.16%
헬스케어 ETF	-3.27%	하이일드 ETF	-0.45%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33%
반도체 ETF	-6.71%	Long/short ETF	+2.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0.83	-3.79%	-8.60%	-12.68%
소재	315.78	-3.15%	-6.88%	-14.47%
산업재	582.42	-3.43%	-7.40%	-11.56%
경기소비재	823.39	-3.31%	-5.85%	-11.88%
필수소비재	562.98	+0.49%	+2.21%	+1.48%
헬스케어	1,010.21	-3.29%	-6.58%	-7.56%
금융	418.25	-2.69%	-6.63%	-9.99%
IT	1,178.97	-4.43%	-5.97%	-9.96%
커뮤니케이션	146.26	-4.88%	-6.13%	-8.53%
유틸리티	279.97	+2.30%	+2.75%	+7.35%
부동산	197.54	+1.13%	+1.40%	-0.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국 증시 변화에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3.34% MSCI 신흥 지수도 3.2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418계약)에도 불구하고 6.05pt 나 하락한 266.00pt 로 마감 했다. KOSPI 로 환산하면 2,051pt 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8.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특히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발효로 기업들의 투입비용 증가 및 완제품 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61% 급락한 점은 부담이다.

다만, 사우디 왕세자가 언론인 살해는 정당화하지 못하며 터키와 협조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우디 관련 이슈가 완화된 점, 메이 영국 총리가 1922 위원회 결과 불신임안이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된 점은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이다. 더불어 매파성향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장기 연방기금 금리 수준에 대해 3%를 예상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매파 성향의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도 “내년 금리는 2.75%~3.00%로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다” 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우려를 완화 시킨 점 또한 긍정적이다. 한편, MS 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외 실적 발표 이후 4% 넘게 상승 중이며 테슬라도 큰 폭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시간 외로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물론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낙폭이 확대되기 보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며, 장중 중국 증시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 지표 둔화 지속

미국 신규주택판매는 전월(58.5 만건) 보다 감소한 55 만 3 천 건에 그쳤다. 전월 대비 5.5% 감소했다. 최근 주택 구매 보다 수리하는 경향을 보이자 주택 지표 둔화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한편, 미국의 8 월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

미국 10 월 제조업 PMI 는 전월(55.6) 보다 개선된 55.9 로 발표되었다. 서비스업 PMI 또한 전월(53.5) 보다 개선된 54.7 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와 원유재고가 635 만 배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이는 가솔린 재고가 483 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 또한 226 만 배럴 감소하며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심리적인 안정을 줬다. 더 나아가 사우디 왕세자가 언론인 살해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고 터키와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가 독일 10 년물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가 400bp 가 넘을 경우 이탈리아 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예상보다 약한 제조업 PMI 지수 결과도 약세 요인 이었다. 파운드화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1922 위원회를 통해 불신임안이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는 지속되었다.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하락 했다. 더불어 매파 성향의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장기 금리 수준은 3% 예상” 한다고 발언한 점, 또 다른 매파 성향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도 “내년 금리 수준의 기본 시나리오는 2.75~3.00%로 예상” 한다고 언급하는 등 매파 성향의 연준위원들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다만,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48 배) 보다 낮은 2.30 배에 그치자 하락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로 소폭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와 달러 강세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2%, 철근도 0.70%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6.82	+0.59	-4.13	Dollar Index	96.359	+0.41	+0.82
브렌트유	76.17	-0.35	-4.85	EUR/USD	1.1398	-0.64	-0.90
금	1,231.10	-0.46	+0.30	USD/JPY	112.17	-0.24	-0.43
은	14.676	-0.79	+0.09	GBP/USD	1.2885	-0.75	-1.75
알루미늄	1,997.00	-0.20	-1.24	USD/CHF	0.9973	+0.24	+0.20
전기동	6,179.00	-0.27	-0.64	AUD/USD	0.7062	-0.34	-0.66
아연	2,663.00	-0.22	-0.08	USD/CAD	1.3049	-0.28	+0.22
옥수수	368.25	-0.54	-1.60	USD/BRL	3.739	+1.20	+1.41
밀	499.50	-1.87	-3.48	USD/CNH	6.9457	+0.10	+0.22
대두	863.50	-0.86	-4.03	USD/KRW	1132.30	-0.47	+0.51
커피	120.25	-0.70	-1.88	USD/KRW NDF1M	1138.55	+0.33	+0.99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09	-5.85	-9.59	스페인	1.622	-3.80	-2.50
한국	2.302	-0.50	-2.80	포르투갈	1.977	-2.40	+3.50
일본	0.135	-1.70	-1.30	그리스	4.277	-1.30	-2.40
독일	0.396	-1.30	-6.50	이탈리아	3.603	+1.40	+5.80